

**Q2** | 산불피해 저감 숲 관리 후 벌채 산물은 왜 처리해야 하나요?

**A** 숲가꾸기 후 벌채 산물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, 연료 소모 시까지 불이 오래 지속되고, 띠 형태의 적재 특성으로 인해 불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합니다.

2005년 발생한 양양·낙산사 산불 재발화 원인으로 숲가꾸기 산물에 의한 불씨 재발화가 지목된 바 있습니다. 숲가꾸기 후 벌채 산물로 인해 지표층 연료량은 우리나라 평균 소나무림 보다 약 2.7배 많아지고, 수관화 전이 위험성은 약 2배 이상 높아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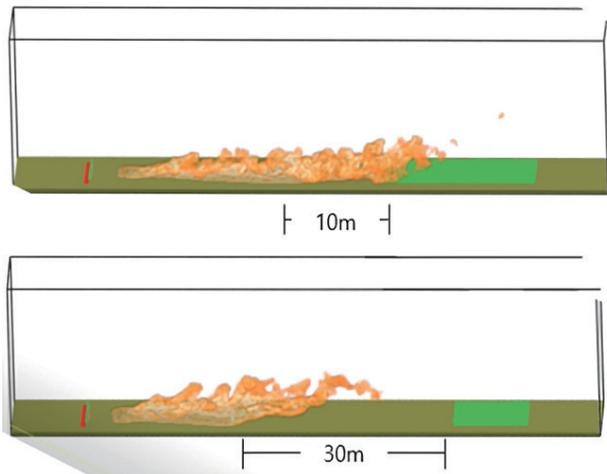
벌채 산물 적재형태에 따른 화염전과 특성을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, 산물이 쌓여있을 때 산불강도가 강해졌으며, 산물간격을 30m 이상 떨어뜨려야 불이 옮겨붙지 않았습니다.



숲 관리 후 방치된 벌채 산물 전경



벌목지 내 벌채 산물 적재 형태



벌채산물 적재에 따른 산불위험성 비교